

# 종교개혁, 역사가 아니라 현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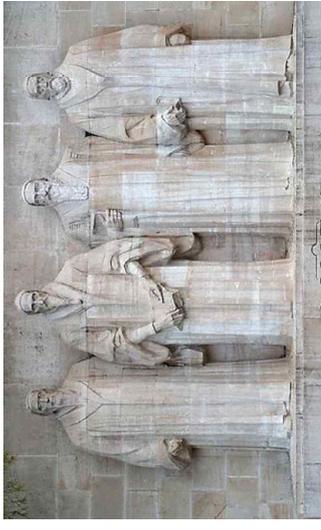
◎ 김중락 (경북대 교수, 세계관연구소장)

약 500년 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의 수도사이며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교수였던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가 교회의 면벌부(Indulgence) 판매에 항의하여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후 서방가톨릭교회는 크게 가톨릭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로 분열되었다. 이 분열은 일부인에게 '종교개혁'(reformation)으로 간주되지만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종교개혁(the Reformation)이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루터의 사상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루터의 사상은 1520년에 저술된 세권의 책에 담겨있다. 루터의 저술은 『독일의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과 『교회의 바벨론 유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다. 이 세 권의 책에서 추출한 그의 중심 사상은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론(Justification by faith only)'과 '만민제사장설(priesthood of all believers)'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사상은 당시 교회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당시 가톨릭교회는 교회가 강한 성사와 전통에 대한 순응을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쳤고, 각 교구의 목회자들을 사제라고 불렀다. 우리말 '사제'와 '제사장'은 둘 다 'priest'라는 용어의 번역이다. 구약시대 타인의 속죄를 위해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제사장이며, 타인의 죄를 대신하여 기도를 드려주는 이가 제사장이다. 루터는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은 어떠한 의직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각인이 제사장이 되었으므로 다른 사제나 제사장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면 과연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를 분열해야 할 만큼 중대한 오류였는가? 그리스도인의 믿음행위 그 자체는 그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다.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당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으로 가는 참된 길을 찾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이는 참된 교회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교회의 또 다른 큰 잘못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을 무위로 돌린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스도 스스로 제사장으로써 자신이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짐으로 더 이상 희생이 필요없는 죄사함을 모든 성도들에게 주셨다. 또 이는 이 자신의 죄를 직접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사람이 있어서 여전히 특별한 사제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 가르친다면 이 어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도전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루터는 이러한 교회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열의 아픔을 감내했던 것이다. 즉 루터의 가르침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다면 분열을 감수하고서라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개혁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불행히도 교회의 오류는 단번으로 끝나지 않은 현상이다. 교회사를 통해 볼 때 그리스도 이후 교회는 끊임없이 오류에 빠지고, 또 그 때마다 새로운 개혁 운동이 있었다. 교회의 역할이 강했던 서양 중세 친년동안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새로운 수도회들이 나타났고 그들이 개혁의 기치를 높였다. 그러나 여러 수도회들은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타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새로운 개혁은 새로운 수도회가 감당하였다. 베네딕트 수도회, 클뤼니 수도회, 시토수도회,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프란체스코 수도회 그리고 도미니 수도회 등이 같은 길을 걸었다. 이것은 교회는 항상 타락에 빠지기 때문에 개혁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되어야 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종교개혁으로 생긴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개혁교회(Reformed Church)”, 그들의 신앙을 “개혁신앙(Reformed Faith)”이라 칭한다. 협의로는 칼뱅과 교회사와 칼뱅주의(Calvinism)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에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개혁주의”라는 용어이다. “개혁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 초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길은 없다. 이는 분명 ‘reformed’가 아니라 오히려 ‘reformism’을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reformed’가 완료된 개혁을 의미한다면 ‘reformism’은 늘 개혁하는 정신에 더 무게를 둔 개념이다. 즉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개혁교회를 도입하면서 앞으로도 개혁을 지속해서 나가야한다는 정신도 같이 설정한 것이다.

#### 한국 기독교의 지상

최근 수년간 가톨릭교회와 불교계는 한국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으며, 나날이 그 교세를 더하고 있다. 지난 2009년 초에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은 정반한 삶을 산 것으로 인해 세인들의 경외의 대상이 되었고, 아 프리카 수단의 본즈에서 일생을 헌신한 이태석 신부의 이야기는 가톨릭 교인들뿐 아니라 전 국민들을 감동으로 울리고 있다. 또한 불교 지도자였던 범정스님은 무소유의 삶을 산 것으로 인해 불교에 대한 세상의 인식을 바꾸어 놓고 있다.

반면 프로테스탄트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수년간 개신교는 가톨릭과 불교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불신자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다. 많은 개신교 지도자들이 논문제, 여자문제로 세인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며, 교회를 사유화하고 세습까지 하는 상황이다. 큰 교회 담임목회자의 은퇴 예우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타락의 핵심을 보여준다. 공식적인 퇴직금은 물론, 수억의 위로금, 이파트, 차, 그리고 연금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어느 회사 직원들이 이 같은 대우를 받는단 말인가? 다른 누구보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평생을 말씀

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단에서 외친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교우들과 세상을 실망시킨다면 수많은 개신교도들은 누구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평생을 열악한 상황에서 고생한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느끼야하는 소외감은 어떤까? 엘리의 두 아들 홀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지도자들이 누구인가? 성도들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낭비하고, 지나치게 많은 사례를 받고 있는 목회자들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 켜 홀니와 비느하스이다. 교회를 자신의 사업장으로 여기는 이들이 흠니이고 비느하스이다.

강단은 복음과 진리 대신 이지와 광대놀음과 무례로 가득 차 있다. 극단적 근본주의는 모든 국민과 타종교인들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교회의 재정은 사치와 내부 잔치로 낭비되고 있으며, 이웃을 위한 봉사와 회생은커녕 불신자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교회의 타락과 오염을 어찌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 있랴. 무엇보다도 걱정스러운 것은 성직주의의 대두이다.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이전의 사제 역할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들만 하나님의 사역자로 규정하고 구약시대의 테위피과인양 행동한다. 시가 매체의 기독교 관련 방송을 보면 저지 않은 목회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하던 화려하고 권위적인 성직복을 입고 출연한다. 겸손과 근검의 표시로 장식 없는 검정색 가운을 입고 다녔던 종교개혁시기 목회자들과는 그 출발이 다르다. 강단에서도 그들은 성도들의 지적자살을 유도한다. “따지지 말고 순종하라.”

#### 김히 따지는 사람들

이러한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상황은 500년 전 루터가 경험한 교회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의 한국교회를 부정하고 새로운 교



김동락 경북대학교에서 학부, 석사과정을 마치고 영국 캠브리지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이자 (사)독교세계번역운동역회 세계번역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개인 (개혁신앙)의 편집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를 만들어야 할까? 모든 상황이 교회의 분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기에도 에라스무스와 같은 이들은 교회의 분열보다는 교회내부에서 개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 교회의 모습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타락했음을 감안할 때 에라스무스보다는 루터의 선택이 더 옳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에라스무스는 말을 남겼고 루터는 그 말을 부화시켰다”란 말처럼 종교개혁은 에라스무스 같은 이들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아직 한국교회에는 기회가 남아있다. 분열을 논할 때는 아니다.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가는 에라스무스와 같은 개혁가들이다. 지금 에라스무스같은 인물이 없다면 곧 우리는 루터와 칼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의 개혁을 외치는 많은 단체들이 나타나고 있음은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교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혁주의 신앙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음도 감사한 일이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있다. 한때 개혁을 부르짖던 이들도 마찬가지로 타락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종교개혁자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히 따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잠잠했다면 개혁교회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종교개혁은 단회로 끝나버린 역사가 아니다. 지금 일어나야만 하고, 또 일어나고 있는 현재적 사건이다.